

## 대만 해외시장동향 [2026년 4월]

'26. 4. 30(목) / 한국관광공사 타이베이지사

**= [대만] 방한입국루트, 인천/김해공항 비중차이 크게 좁혀져, 운항편 수도 거의 비슷, '붙었다' =**

### [주요내용 목차]

#### 1. 대만 관광시장 동향

##### 1.1 대만 아웃바운드관광 시장동향

- '26.1~3월 월별 대만 아웃바운드 관광객수
- '26.1~3월 아웃바운드 목적지별 대만 관광객수
- '26.1~3월 대만 아웃바운드 동향

##### 1.2 대만 인바운드관광 시장동향

- '26.1~3월 방대만 인바운드 관광객수
- '26.1~3월 주요국가 방대만 관광객수
- '26.1~3월 대만 인바운드 동향

##### 1.3 대만 기타 관광시장 동향

[대만 인바운드 시장] △(유치동향) 일본 골든위크(4.29~5.5) 선호 해외여행지로 대만 도시 부상, △(양안관광) 중국정부 <대만 10대 우대정책> 발표, 대만 관광업계 환영, △(관광서) 주요 인바운드 시장인 일본 및 한국 타깃 집중 마케팅 실시 등

[대만 아웃바운드 시장(일반동향 및 경쟁국 동향)] △(일반동향) 올해 연간 아웃바운드 관광객 수 2천만 돌파 예상, △(트렌드\_일본) 일본 방문 외국인관광객 중 지출액 1위는 '대만', △(트렌드\_한국) Z세대 인기 여행지는 서울, 뷰티와 한국 스타일에 관심 많아, △(경쟁국\_일본) 항공료 인상, 홋카이도 숙박세 부과 등 일본여행 비싸져, △(경쟁국\_중국) 대만인 중국 여행수요 개별·단체 모두 큰 폭 증가, △(경쟁국\_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방문의해' 론칭, 대만시장 이미 9% 성장, △(경쟁국\_태국) 태국 무비자정책 축소, 대만인 체류일수 절반으로 줄어, △(항공동향) 타이중 국제노선 지속 확대, 에바항공 유럽노선 강화

[대만 관광산업(국내관광포함)] △(국내여행) 노동절 연휴(5.1~3) 기간 국내여행 회복세, 호텔 예약률 증가, △(여행사) 주요 전통여행사 매출 강세, 라이온여행사 선진화 행보 지속

#### 2. 방한관광 현황 및 전망

##### 2.1 방한 대만관광객수 추이 및 특징

- '26.1-3월 방한 대만관광객수/ - 입국(공항) 루트별 대만관광객수 및 비중

##### 2.2 방한 항공동향

- '26.1-3월 대만-한국 노선 운항편수 및 '25년 대비 증가율
- '26.3월 현재 주요 노선 운항편수 및 주요 분석

2.3 향후 전망: 대만 방한입국루트, 인천/김해공항 비중차이 크게 좁혀져, 운항편수도 거의 비슷, '붙었다'

#### 3. 타이베이지사 '26.4월 현재 추진 주요사업 및 동향

# 1. 대만 관광시장 동향

## 1.1 대만 아웃바운드관광 시장동향

○ 2026.1-3월 월별 대만 아웃바운드 관광객수 (단위 : 명)

구 분	'26년(a)	'25년(b)	'24년	a/b 증가율
1월	1,765,274	1,613,482	1,281,751	9.4%
2월	1,828,010	1,415,766	1,389,474	29.1%
3월	1,771,921	1,463,304	1,321,971	21.1%
<b>1~3월</b>	<b>5,365,205</b>	<b>4,492,552</b>	<b>3,993,196</b>	<b>19.4%</b>
4월		1,475,009	1,347,523	
5월		1,525,029	1,360,781	
6월		1,648,672	1,566,852	
7월		1,733,458	1,572,801	
8월		1,735,942	1,547,087	
9월		1,498,878	1,364,271	
10월		1,735,534	1,409,979	
11월		1,535,165	1,360,810	
12월		1,564,197	1,326,383	
<b>계</b>		<b>18,944,436</b>	<b>16,849,683</b>	

[출처] 대만 관광서 통계자료 정리 (※4.30 현재 '26.3월 데이터까지 발표)

○ 2026.1-3월 월별 아웃바운드 목적지별 대만 관광객수 (단위 : 명)

구 분	일본	중국	한국	베트남	태국	홍콩
<b>1월 (비중)</b>	687,698 (39.0%)	284,532 (16.1%)	163,616 (9.3%)	97,950 (5.5%)	102,407 (5.8%)	140,151 (7.9%)
<b>2월 (비중)</b>	685,066 (37.5%)	249,539 (13.7%)	180,547 (9.9%)	98,964 (5.4%)	113,774 (6.2%)	165,358 (9.0%)
<b>3월 (비중)</b>	640,025 (36.1%)	334,387 (18.9%)	191,864 (10.8%)	101,612 (5.7%)	86,256 (4.9%)	143,377 (8.1%)
<b>(a) '26.1-3월 (비중)</b>	<b>2,012,789 (37.5%)</b>	<b>868,458 (16.2%)</b>	<b>536,027 (10.0%)</b>	<b>298,526 (5.6%)</b>	<b>302,437 (5.6%)</b>	<b>448,886 (8.4%)</b>
<b>(b)'25 비중*</b>	<b>35.5%</b>	<b>17.1%</b>	<b>9.7%</b>	<b>6.4%</b>	<b>5.4%</b>	<b>8.6%</b>
<b>(c)'24 비중*</b>	35.6%	16.4%	8.5%	7.5%	6.7%	7.1%
<b>(d)'23 비중*</b>	35.8%	14.9%	8.1%	7.2%	6.6%	6.3%

[출처] 대만 관광서 통계자료 정리/ \*각 년도 대만 아웃바운드에서 차지하는 비중

○ 2026.1-3월 대만 아웃바운드 동향

- 대만의 3월 아웃바운드 관광객수는 1,771,921명으로 전년 동기 (1,463,304명) 대비 21.1% 성장하였음. 1~3월 누계로는 5,365,205명으로 전년 동기(4,492,552명) 대비 19.4% 증가하여 올해도 대만의 아웃바운드관광 규모는 역대 최고치를 넘어설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임

- 1분기 대만 아웃바운드목적지별로는 일본, 중국, 한국, 홍콩, 태국 및 베트남 순이었으며 일본, 한국, 태국, 홍콩이 전년 동기 대비 대만 아웃바운드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증가한 반면 중국과 베트남의 점유율은 하락하였음
- 대만의 이러한 아웃바운드관광객 규모는 2분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실제로 지난해와 2024년 대만의 4~6월 아웃바운드 관광객수는 지속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왔음

[2023~2025년 4~6월 대만 월별 아웃바운드 관광객수]

구 분	'25년(a)	'24년(a)	'23년(b)
4월	1,475,009	1,347,523	830,184
5월	1,525,029	1,360,781	877,833
6월	1,648,672	1,566,852	1,131,234

- 다만 중동정세에 따른 유류할증료 인상이 4월부터 시작되어 5월에도 재차 인상될 가능성이 커서 이에 따른 항공요금 인상이 향후 어떤 흐름을 만들어낼지 추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음. 여행업계에서는 항공요금이 대폭 인상될 수밖에 없는 중장거리 노선 이용률이 줄어들고 이러한 감소 수요가 단거리 목적지로 전환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는 가운데 전반적인 아웃바운드 관광 파이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2분기 흐름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 1.2 대만 인바운드관광 시장동향

○ 2026.1-3월 월별 방대만 인바운드 관광객수 (단위 : 명)

구 분	'26년(a)	'25년(b)	'24년	a/b 증가율
1월	723,375	651,078	589,961	11.1%
2월	625,608	699,158	648,348	-10.5%
3월	883,061	778,576	811,608	13.4%
<b>1-3월</b>	<b>2,232,044</b>	<b>2,128,812</b>	<b>2,049,917</b>	<b>4.8%</b>
4월		751,149	610,146	
5월		710,933	581,748	
6월		606,346	571,510	
7월		586,226	539,454	
8월		673,102	616,922	
9월		601,339	575,455	
10월		757,860	661,115	

11월		812,236	747,800	
12월		946,544	903,619	
<b>계</b>		<b>8,574,547</b>	<b>7,857,686</b>	

[출처] 대만 관광서 통계자료 정리 (※3.31 현재 '26.2월 데이터까지 발표)

○ 2026.1-3월 월별 주요국가 방대만 관광객수 (단위 : 명)

구분	홍콩/마카오	일본	한국	미국	베트남
1월 (비중)	81,266 (11.2%)	120,310 (16.6%)	130,755 (18.1%)	56,056 (7.7%)	31,044 (4.3%)
2월 (비중)	90,056 (9.3%)	70,337 (11.2%)	96,313 (15.4%)	50,923 (8.1%)	41,169 (6.6%)
3월 (비중)	98,865 (11.2%)	166,393 (18.8%)	94,334 (10.7%)	79,914 (9.0%)	57,327 (6.5%)
<b>(a)'26.1-3월 (비중)</b>	<b>270,187 (12.1%)</b>	<b>357,040 (16.0%)</b>	<b>321,402 (14.4%)</b>	<b>186,893 (8.4%)</b>	<b>129,540 (5.8%)</b>
<b>(a)'25 비중*</b>	<b>15.3%</b>	<b>17.3%</b>	<b>11.9%</b>	<b>8.3%</b>	<b>5.0%</b>
<b>(a)'24 비중*</b>	<b>16.7%</b>	<b>16.8%</b>	<b>12.8%</b>	<b>8.3%</b>	<b>4.7%</b>
<b>(a)'23 비중*</b>	<b>18.5%</b>	<b>14.3%</b>	<b>11.5%</b>	<b>8.2%</b>	<b>5.9%</b>
구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중국
1월 (비중)	28,113 (3.9%)	33,064 (4.6%)	33,365 (4.6%)	68,517 (9.5%)	46,690 (6.5%)
2월 (비중)	27,312 (4.4%)	21,584 (3.5%)	26,968 (4.3%)	61,602 (9.8%)	58,062 (9.3%)
3월 (비중)	42,966 (4.9%)	47,795 (5.4%)	46,138 (5.2%)	79,900 (9.0%)	46,864 (5.3%)
<b>(a)'26.1-3월 (비중)</b>	<b>98,391 (4.4%)</b>	<b>102,443 (4.6%)</b>	<b>106,471 (4.8%)</b>	<b>210,019 (9.4%)</b>	<b>151,616 (6.8%)</b>
<b>(a)'25 비중*</b>	<b>4.5%</b>	<b>5.2%</b>	<b>4.8%</b>	<b>7.3%</b>	<b>7.4%</b>
<b>(a)'24 비중*</b>	<b>5.5%</b>	<b>5.7%</b>	<b>5.1%</b>	<b>5.9%</b>	<b>5.6%</b>
<b>(a)'23 비중*</b>	<b>6.7%</b>	<b>7.2%</b>	<b>6.1%</b>	<b>5.9%</b>	<b>3.5%</b>

[출처] 대만 관광서 통계자료 정리/ \*각 년도 대만 인바운드에서 차지하는 비중

○ 2026.1-3월 대만 인바운드 동향

- 대만의 3월 인바운드관광객수는 883,061명으로 전년 동기(778,576명) 대비 13.4% 증가하여 비교적 큰 폭의 성장세를 보였음. 이에 힘입어 1분기 대만 인바운드관광객수는 2,232,044명으로 전년 동기(2,128,812명) 대비 4.8%로 증가세로 돌아섰음. 지난 1~2월 누적으로는 2026년도 수치는 전년 동기 대비 0.1% 감소한 바 있음
- 다만 1분기의 성장세는 지난달 대만 교통부장관이 전망한 올해 예상치 930~940만명을 달성하기까지는 다소 부족한 양상임. 지난해 대만 인바운드시장은 8,574,547명으로 940만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11.0%

성장이 필요함.

- 1분기 대만을 방문한 외래객 가운데 제일 많은 관광객은 일본인이었는데 모두 357,040명으로 전체에서 16.0%의 비중을 차지하였음. 다음으로는 한국으로 321,402명으로 비중은 14.4%였으며 세 번째는 홍콩/마카오로 12.1%의 비중을 차지했음. 다음으로는 필리핀(9.4%), 미국(8.3%), 중국(6.8%), 베트남(5.8%), 태국(4.8%), 싱가포르(4.6%), 말레이시아(4.4%) 순이었음
- 한편 한국과 일본의 방대만 관광 규모는 매년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1~2월에는 한국이 일본을 앞질러 첫 번째 방대만 국가였으나 3월에는 일본이 한국을 추월하며 1분기 최종적으로는 일본이 첫 번째 방대만 국가가 되어왔음. 이러한 양태는 코로나 이후 2024~2026년 매년 똑같은 모습이었음

### 1.3 대만 기타 관광시장 동향

#### 대만 인바운드시장

- (유치동향) 일본 골든위크(4.29~5.5) 선호 해외여행지로 대만 도시 부상
  - (Expedia) 일본 Expedia가 최근 발표한 <2026 일본 골든위크 여행동향>에 따르면, 가오슝이 '가성비 좋은 숨겨진 여행지' 4위, 타이난이 5위 ※그 외 1~3위는 각각 부산, 인천, 마닐라 차지
  - (Agoda) 일본 Agoda 역시 골든위크 인기 여행지 순위 발표, 타이베이 3위 기록. 1위는 서울, 2위는 방콕이 차지. 또한 대만 남부 컨딩이 검색량 112% 증가로 해당 기간 대만 방문 일본 관광객들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대만 매체들은 전망
  - 이에, 대만 관광지들은 일본 손님 맞기 준비가 한창인데, 타이베이 대표 5성급 호텔인 리젠트 타이베이 호텔은 골든위크 기간 예약률은 90%이고, 대부분 일본인 투숙객이라며 일본인 선호 레스토랑 메뉴를 준비하는 한편, 일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유명 관광지 지우편은 일본이 연상되는 등불로 거리를 새로 장식하기도 함
- (양안관광) 중국정부 <대만 10대 우대정책> 발표, 대만 관광업계 환영
  - 국민당 대표 정리원(鄭麗文)과 시진핑 중국 공산당 주석 회담 직후, 중국은 <대만 10대 우대정책> 발표, 주요 내용은 '관광활성화', '농수산물 교역' 허용, 양안 청년교류 촉진 등이며, 특히 대만 관광업계

는 ‘양안 직항여객기 운항 재개’ 및 ‘중국인 개별여행 재개’ 등 조치를 크게 환영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직항 항공편 확대·정상화’는 우루무치, 시안, 하얼빈, 쿤밍 등 중국 내륙 도시까지 확대를 추진한다는 내용인데, 이에 대해 대만정부(교통부)는 “이미 양안간 노선은 충분한 상태”이며, “시장 수요조사를 통해 필요시 검토” 정도로 미온적 태도를 취하고 있음. 한편, ‘중국인 대만 개별여행 재개’는 상하이, 푸젠 주민 대상 대만 자유여행 우선 재개한다는 내용이나, 대만정부(대륙사무위원회)는 “정부 대표기구를 통한 공식적인 소양안협의(관광협상)가 먼저 진행돼야”라는 조건을 내 걸었고, 실무협의를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
- 이에 대만 관광업계는 최근 대륙방문 대만관광객이 큰 증가세인 만큼, 더 많은 중국 지역의 항공노선이 재개된다면 아웃바운드 여행상품 활성화로 여행사 수익이 증가될 것이며, 중국인들의 개별여행 개방은 국내관광과 인바운드관광 침체로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 관광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전망하며 크게 환영, 동시에 대만 정부의 호응을 촉구

※ [참고] 중국의 <대만 10대 우대정책> : ①양안 정당 간 소통 제도화 ②‘92공식’ 기반 협력 재확인 ③청년 교류 확대 프로그램 ④직항 항공편 확대 및 정상화 ⑤중국인의 대만 관광 재개 추진 ⑥대만 농수산물 수입 확대 ⑦대만 식품·기업 진입 장벽 완화 ⑧대만 기업의 중국 진출 지원 ⑨진먼(金門)·마쭈(馬祖) 등 도서지역 인프라 중국 본토와 연결 ⑩문화·콘텐츠 교류 확대

\* 하나의 중국은 인정하되, 그 의미는 각자 해석

○ (관광서) 주요 인바운드 시장인 일본 및 한국 타깃 집중 마케팅 실시 등

- (일본) 일본 골든위크 연휴 및 여름휴가 해외여행 수요 선점을 위해 대만 관광서는 항공사 등 34개 기관 45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이끌고 도쿄 아키하바라에서 ‘대만은 문을 닫지 않는다’ 테마로 ‘도쿄 대만관광관’ 운영(4.10~14). 최근 일본의 마지막 판다가 중국으로 반환된 것에 착안 ‘대만에서 판다보기’ 테마를 홍보하고, 대만 차(茶)문화 체험, 대만의 술 및 미식 체험 등으로 홍보 프로그램을 진행. 또한

- 4.13일은 오키와도쿄호텔에서 B2B 상담회를 진행, 100여건의 미팅 성사
- (한국) 연이어 관광서는 서울 성수동에서 '24시간 대만족, 대만문화 체험' 행사 진행(4.25~26). 전통무용 공연, 음식체험, 문화체험 등 소비자가 직접 대만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대만관광을 홍보, 행사장엔 약 2천명의 한국인 소비자가 방문한 것으로 알려짐. 한편 6.27일엔 신라호텔에서 B2B 행사를 개최, 대만측 41개 기관 73명이 한국 업계와 약 200건의 미팅을 진행함
- (동남아) 또한, 관광서는 동남아 주요시장 여행박람회인 싱가포르 Asia Diving Expo 2026(ADEX BIG BLUE LEGACY) (4.10~12) 및 베트남 VITM(4.9~12)에 참가, 대만관광 홍보관 운영

**대만 아웃바운드시장(일반동향 및 경쟁국 동향)**

○ (일반동향) 올해 연간 아웃바운드 관광객 수 2천만 돌파 예상

- 올해 1~2월 대만인 해외여행건수는 약 359만건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57만건 증가, 매월 최고기록 갱신 중
- 미국-이란 전쟁으로 인한 유가상승이 항공료를 인상시켜 해외여행 수요를 감소시킬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대만 여행업계는 장거리 항공권이나 여행상품 수요가 단거리로 전환될 뿐 여행객수나 상품구매 건수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 분석 중
- 실제, 대만 주요 OTA, ezTravel에 의하면 3월 해외 항공권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 53만건 판매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3월이 원래 성수기이기도 하지만 대만 항공사들이 유류할증료를 인상하기 시작한다는 소식에 여름휴가 여행 예약이 급증하면서 판매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한편, 대만 항공사들은 4.7일부로 유류할증료를 단거리 노선의 경우 USD17.5에서 USD45.5로, 장거리 노선은 USD45.5에서 USD117로 인상하여 역대 최고치 인상폭을 기록. 이로 인해 콜라, 라이온, 우푸 등 대표 여행사들의 아시아 단거리 여행상품은 NT\$2,000~3,000(한화 10~14만원), 구미주 장거리 여행상품은 NT3,000에서 최대 NT\$10,000(46만원)까지 인상될 것이라 예상하였고,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인상폭이 낮은 단거리 여행상품으로의 수요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

- (트렌드\_일본) 일본 방문 외국인관광객 중 지출액 1위는 '대만'
  - 일본관광청 발표, <'26년 1분기 외국인 관광객 소비 동향 조사>에 따르면, 대만인은 1분기 동안 일본에서 지난해 동기 대비 22.5% 증가한 총 3,884억엔(NT\$772만)을 지출하여, 한국, 중국, 미국을 제치고 1위 기록
  - 타국가 여행객의 최대 지출항목이 '숙박'인데 비해, 대만인들의 여행 경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쇼핑(1,297억엔)'으로 '숙박(1,218억엔)'과 '식음료(821억엔)'를 크게 앞서는 특징을 보임
- (트렌드\_한국) Z세대 인기 여행지는 서울, 뷰티와 한국 스타일에 관심 많아
  - 대만 주요 여행플랫폼 ezTravel 데이터에 의하면, 2025년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 10곳은 도쿄, 서울, 오사카, 오키나와, 홍콩, 부산, 방콕, 상하이, 후쿠오카, 마카오 순. 이 중 일본 도시는 4곳이며 일본 전체 항공권 판매량은 전년 대비 약 64% 증가하며 부동의 1위 기록. 플랫폼이 주목한 것은 한국의 성장으로 항공권 판매량은 104% 증가했고, 서울이 처음으로 오사카를 누르고 판매 순위 2위로 등극
  - 한편, 최근 유력 OTA, Klook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대만관광객의 58%가 한국여행계획에 '뷰티'나 '스타일링' 관련 체험을 포함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해, 대만의 방한관광객들의 동 분야 높은 관심을 확인. 인기 있는 체험으로는 '퍼스널 컬러 분석(37%)', '한국식 메이크업 또는 헤어 스타일링(31%)', '한국식 사진촬영(22%)' 및 'DIY 화장품과 향수(10%)'으로 조사됨
- (경쟁국\_일본) 항공료 인상, 홋카이도 숙박세 부과 등 일본여행 비싸져
  - 일본 양대 항공사 ANA와 JAL은 6월 항공권 판매부터 일본발 국제 노선에 대한 유류할증료 대폭 인상, 여름 성수기 여행수요에 직접적인 영향 끼칠 예정. 대만 노선의 경우 항공료 인상폭은 약 5,000엔(NT\$1,024, 한화 4만8000원)선
  - 홋카이도 정부는 4.1일부터 지역내 투숙 관광객에게 '숙박세' 부과. 숙박세는 도(道)/시(市) 세(稅)와 도로세 등으로 구성되며, 숙박요금 구간에 따라 구분 부과됨. 예로 삿포로시 숙박시설의 숙박비가 20,000~50,000엔 구간의 경우, 홋카이도 도로세 500엔과 삿포로시 세 500엔을 합쳐 약 1,000엔(NT\$200, 한화 9,200원)의 숙박세가 부과됨

- (경쟁국\_중국) 대만인 중국 여행수요 개별·단체 모두 큰 폭 증가
  - 지난해 중국 방문 대만인이 크게 늘어 머지않아 팬데믹 이전 인원에 도달할 것이라고 대만 야당이 발표. 지난해 7월 중국정부가 대륙 첫 방문자 대상 '대만동포증명서' 무료발급을 시작하자, '중국 첫 방문' 대만 자유여행객이 약 22% 증가했다고 발표, 여기서 더욱 중요한 것은 이들 중 45세 이하 젊은층이 72%라는 점이라 언급
  - 한편, 대만 매체는 대만 아웃바운드 여행시장에서 중국여행에 대한 수요는 지속 증가세에 있으며, 현 정부의 대륙 단체여행 금지 조치가 대만여행사들로 하여금 '암시장 여행'을 형성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 여행사들은 중국여행 수요에 불법적인 형태로 접근하여 비공식 여행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관광객들의 권리는 침해 받고 있다고 보도
- (경쟁국\_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방문의해' 론칭, 대만시장 이미 9% 성장
  - 말레이시아관광청, 4.23일 타이베이서 '2026 말레이시아 방문의해' 론칭 행사 개최. '안정적인 기후로 연중 여행하기 좋은 지역' 테마로 4월 뮤직 페스티벌, 5월 디자인 페스티벌 등 다채로운 특별 행사와 체험 프로그램을 홍보. 아울러 올해 1~2월 말레이시아 방문 대만인이며 8.79% 성장했음을 발표
- (경쟁국\_태국) 태국 무비자정책 축소, 대만인 체류일수 절반으로 줄어
  - 태국이 관광활성화를 위해 실시했던 93개국 대상 무비자 체류기간 연장(30일→60일, '24. 7월~) 정책을 조정, 대상국은 93개국에서 57개국으로 줄이고, 체류기간도 30일로 축소하는 방안 실시 예정. 일부 관광객의 불법활동을 위한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함이라고 태국정부는 설명하고 있고, 실시될 경우, 대만인 무비자 체류기간도 30일로 축소
- (항공동향) 타이중 국제노선 지속 확대, 에바항공 유럽노선 강화
  - (타이중) 스타룩스, 타이중-도쿄/구마모토 노선 신규취항(3.30~), 진에어, 타이중-부산 신규 취항(3.30~), 타이거에어 타이중-오키나와 신규 취항(3.31~)
  - (에바항공) 현재 유럽 6대 도시(비엔나, 파리, 런던, 암스테르담, 뮌헨, 밀라노) 매주 35편의 왕복 항공편 운항 중. 특히, 유럽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비엔나는 현재 탑승률 90% 이상으로 호조. 에바는

현재 유럽 노선 확대를 위해 바르셀로나, 헬싱키, 이스탄불 노선 운  
항 검토중 발표

**<한국 전자입국신고서 '중국(대만)' 표기 관련 이슈>**

- (경과)
  - 대만 외교부, 한국 전자입국신고서에 대만을 '중국(대만)'이라 표기한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한국 외교부에 수정을 요구. 한국측 수정이 없어 3.1일자로 대만 외국인 거류증에 한국을 '남한'으로 표기하기로 결정하고, 3.31일까지 한국측의 정정이 없으면 대만 전자입국신고서에서 한국을 '남한'으로 표기하겠다고 발표함
  - 한국 외교부, 3.31일 매체보도를 통해 '대만 방문객 편의 증진', '출입국 시스템 간소화', '종이와 전자신고서 양식일치'를 위해 전자입국신고서에서 "직전 출발지"와 "다음 목적지"("대만" 표기가 문제되었던 항목) 항목 삭제 검토 추진중 발표
- (현황) 대만 외교부, 4.1일자 한국정부가 전자입국신고서 수정을 위한 시간을 요청해 왔다고 밝히며 대만 시스템의 '한국' 표기 수정은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

**대만 관광산업(국내관광포함)**

- (국내여행) 노동절 연휴(5.1~3) 기간 국내여행 회복세, 호텔 예약률 증가
  - 관광서, 노동절 연휴기간 국내관광 수요 큰 폭 증가, 국내 9개 주요 여행지 호텔 객실 점유율이 4.24일자로 60%를 넘어섰다고 발표. 조사 지역별 렌장현(連江縣)\* 81.25%, 타이베이시 79.72%, 난토우현(南投縣) 71.75% 등이 높은 점유율을 기록 중이며, 자이시(嘉義市), 타이난시(台南市), 신베이시(新北市), 타이동현(台東縣), 먀오리현(苗栗縣), 핑둥현(屏東縣)도 공히 60%를 넘어섬. 또한, '24년 지진피해가 아직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타이동현(台東縣) 숙박시설의 예약률도 60~70%로 높은 편
  - \* 해당기간은 렌장현 마쭈(馬祖)열도에서 '야광 플랑크톤 바다'를 감상하는 시즌
  - 한편, 이러한 국내여행 증가세는 최근 유가 폭등으로 인한 국제 항공료 인상이 해외여행수요를 국내여행으로 전환시키고 있고, 국내항공노선의 경우 정부의 보조금 지급으로 가격이 동결되었고, 중앙정부의 국내여행보조금 사업이 무기한 지연되자 지역 정부가 앞다퉈 국내여행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
  - \* (가오슝시) 가오슝 체류 및 마쭈여행 단체 대상 최대 NT\$10,000 지원(4~6월)  
(자이시) 개별 국내관광객 대상 객실당 NT\$1,000, 최대 2박 지원(4~6월) 등
- (여행사) 주요 전통여행사 매출 강세, 라이온여행사 선진화 행보 지속

- 대만 해외여행시장 활성화에 따라, 라이온여행사(雄獅旅行社), 우푸여행사(五福旅遊) 등 대만 대표 전통여행사들의 1분기 매출이 큰 폭으로 성장한 것으로 조사됨. 라이온여행사의 1분기 영업이익은 NT\$81.29억으로 전분기 대비 6.6%, 전년 동기 대비 13.76% 증가 역대 1분기 최고 신기록을 달성했고, 우푸여행사 역시 1분기에 지난해 동기 대비 16.1% 증가한 NT\$25.4억의 매출을 기록, 사상 최고치를 경신함
- 한편, 대만 대표 여행사 그룹인 라이온여행사는 서비스 개선과 사업 기회 확대를 위한 디지털 혁신의 1단계로 최근 AI 고객응대 서비스 'LiLi'를 성공적으로 론칭, 지난해 4분기에만 NT\$1억의 주문 전환 수익을 창출한 것으로 알려졌고, 탄소배출량 감축 등 지속가능한 여행 실시 노력으로 대만 상장 여행사 중 최초로 국제지속가능관광위원회(GSTC)로부터 국제인증을 받아 여행산업 내 선진기업으로서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음

## 2. 방한관광 현황 및 전망

### 2.1 방한 대만관광객수 추이 및 특징

○ 2026.1-3월 월별 방한 대만관광객수

(단위 : 명)

구 분	'26년(a)	'25년(b)	a/b 증가율	'26년 전체 방한객수(c)	a/c 비중
1월	166,779	135,434	23.1%	1,265,658	13.2%
2월	183,753	120,015	53.1%	1,431,472	12.8%
3월	192,138	140,017	37.2%	2,045,992	9.4%
<b>1~3월</b>	<b>542,670</b>	<b>395,466</b>	<b>37.2%</b>	<b>4,743,122</b>	<b>11.4%</b>
4월		151,613			
5월		150,272			
6월		164,885			
7월		199,280			
8월		191,565			
9월		154,992			
10월		161,049			
11월		158,374			
12월		163,918			
<b>계</b>		<b>1,891,414</b>			

[출처] 한국관광 데이터랩

※ 2026.1-3월 한국-대만 방문객수

구 분	대만→한국	한국→대만	계
1월	166,779	130,755	<b>297,534</b>
2월	183,753	96,313	<b>280,066</b>
3월	192,138	94,334	<b>286,472</b>
<b>1~3월</b>	<b>542,670</b>	<b>321,402</b>	<b>864,072</b>

○ 입국(공항) 루트별 대만관광객수 및 비중 (단위 : 명)

구 분	전체	인천	김해	김포	제주	대구	청주
'26.1월	166,779	78,932 (47.3%)	44,852 (26.9%)	12,046 (7.2%)	23,820 (14.3%)	2,074 (1.2%)	4,812 (2.9%)
'26.2월	183,753	82,277 (44.8%)	52,909 (28.8%)	13,299 (7.2%)	24,158 (13.1%)	3,796 (2.1%)	6,683 (3.6%)
'26.3월	192,138	76,238 (39.7%)	62,197 (32.4%)	13,299 (6.9%)	26,152 (13.6%)	3,141 (1.6%)	4,445 (2.3%)
'26.1-3월 누계	<b>542,670</b>	<b>237,447 (43.8%)</b>	<b>159,958 (29.5%)</b>	<b>38,234 (7.0%)</b>	<b>74,130 (13.7%)</b>	<b>9,011 (1.7%)</b>	<b>15,940 (2.9%)</b>
'25년 전체	<b>1,891,414</b>	<b>884,121 (46.7%)</b>	<b>509,136 (26.9%)</b>	<b>144,491 (7.6%)</b>	<b>211,121 (11.2%)</b>	<b>65,143 (3.4%)</b>	<b>41,385 (2.2%)</b>
'24년 전체*	<b>1,473,908</b>	<b>722,453 (49.0%)</b>	<b>361,863 (24.6%)</b>	<b>123,098 (8.4%)</b>	<b>133,256 (9.0%)</b>	<b>73,467 (5.0%)</b>	<b>27,991 (1.9%)</b>

[출처] 한국관광 데이터랩/ [참고] ( )은 전체 입국루트에서 차지하는 비중

\* (무안) 591명, (양양) 4명

○ 주요 분석

- 3월 방한 대만관광객수는 192,138명으로 전년 동기(140,017명) 대비 37.2% 증가하였으며 1~3월 누계로도 542,670명으로 전년 동기(395,466명) 대비 37.2%라는 높은 성장을 기록하였음
- 전체 방한객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월에는 9.4%이며 1분기 누계로는 11.4%를 차지하였음. 대만 관광객은 3월에도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긴 했으나 방한 전체 관광객수 또한 26.7%라는 큰 폭의 증가를 기록한 데 따라 대만 관광객의 점유율 자체는 하락하였음
- 한국과 대만 상호 방문객수는 1분기에 864,072명으로 이러한 흐름이라면 올해 연말 역대 처음으로 3백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됨. 2025년 상호 방문객수 또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긴 했으나 3백만명에 다소 부족한 2,907,934명이었음
- 대만관광객의 입국루트를 보면 매우 놀라운 수치가 한가지 눈에 띄.

3월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대만관광객은 76,238명으로 대만관광객 가운데 39.7%를 차지하여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는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40% 미만으로 떨어졌음. 반면 김해공항으로 들어오는 대만관광객은 62,197명으로 32.4%를 차지해 인천과 김해 비중 차이 또한 7.3%p로 가장 많이 좁혀졌음. 이러한 수치는 대만 관광객의 지방관광 비율이 더욱 높아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매우 유의미한 수치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 이밖에 제주공항으로 들어오는 대만관광객수도 전체 대만관광객수 가운데 13.6%를 차지하였으며 김포공항은 6.9%를 기록하였음
- 한편 1분기 기준 각 공항 입국객수 가운데 대만관광객이 차지하는 비중은 다음 표와 같음

구 분	전체	인천	김해	김포	제주	대구	청주
전체	4,743,122	3,106,828	432,373	318,958	357,376	26,840	32,261
대만	542,670	237,447	159,958	38,234	74,130	9,011	15,940
대만 비중	11.4%	7.6%	37.0%	12.0%	7.6%	33.6%	49.4%

-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대만 관광객은 지방공항 중심으로 비중이 절대적인 상황임. 김해공항 입국객 가운데 대만관광객은 37.0%를 차지하였으며 대구공항에서는 33.6%, 청주공항에서는 과반에 육박하는 49.4%를 차지하였음

## 2.2 방한 항공동향

○ '26.1-3월 대만-한국 노선 운항편수 및 '25년 대비 증가율 (단위 : 편)

구 분	'26년(a)	'25년(b)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전월대비 증가율
1월	2,837	2,486	14.1%	3.4%
2월	2,654	2,215	19.8%	-6.5%
3월	2,902	2,381	21.9%	9.3%
<b>1-3월</b>	<b>8,393</b>	<b>7,082</b>	<b>18.5%</b>	
4월		2,274		
5월		2,377		
6월		2,227		
7월		2,440		
8월		2,460		
9월		2,285		

10월		2,622	
11월		2,628	
12월		2,745	
<b>계</b>		<b>29,140</b>	

[출처] 한국항공협회 항공포털/ [기준] 정기+부정기, 출발편+도착편

○ '26.3월 현재 주요 노선 운항편수

(단위 : 편)

구 분	'26.3월	'26.2월	'26.1월	'25.12월
타이베이-인천	758 (3.4%)	733 (-2.8%)	754 (4.9%)	719 (3.3%)
타이베이-부산	757 (19.6%)	633 (-8.3%)	690 (6.6%)	647 (0.5%)
타이베이-대구	62 (3.3%)	60 (-3.2%)	62 (-%)	62 (3.3%)
타이베이-제주	248 (8.8%)	228 (-8.1%)	248 (-%)	248 (3.3%)
타이베이-청주	177 (-9.1%)	183 (-1.1%)	185 (5.7%)	175 (8.0%)
타이베이(송산)-김포	124 (10.7%)	112 (-9.7%)	124 (-%)	124 (3.3%)
가오슝-인천	186 (10.7%)	168 (-9.7%)	186 (-2.1%)	190 (5.6%)
가오슝-부산	130 (16.1%)	112 (-9.7%)	124 (-%)	124 (5.1%)
가오슝-김포	104 (8.3%)	96 (-9.4%)	106 (-%)	106 (6.0%)
가오슝-제주	71 (10.9%)	64 (-11.1%)	72 (4.3%)	69 (-1.4%)
타이중-인천	248 (10.7%)	224 (-9.7%)	248 (-%)	248 (19.2%)
타이중-제주	17 (6.3%)	16 (-11.1%)	18 (5.9%)	17 (-5.6%)
타이중-부산	4 (%)			
화롄-인천	16 (%)	16 (-11.1%)	18 (12.5%)	16 (33.3%)

[출처] 한국항공협회 항공포털/ [기준] 정기+부정기, 출발편+도착편

[참고] ( )는 전월 대비 증가율

○ 주요 분석

- 2026년 3월 한-대만 운항편수는 2,902편으로 동기(2,381편) 대비 21.9% 증가하였으며 전월(2,654편) 대비로는 9.3% 증가하였음. 2월 일수를 감안하면 2월도 전월 대비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올해 들어 매월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임
- 1~3월 누계 운항편수는 전년 동기 대비 18.5% 증가하였는데 같은 기간 방한 대만 관광객수는 37.2% 증가하였다는 점에서 운항편수 이외 다양한 요인이 대만 관광객수 증가율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 가능함

- 한편 노선별 운항편수에서는 매우 두드러진 변화가 눈에 띈. 전반적으로 모든 노선의 운항편수가 증가한 가운데 타이베이-부산 운항편수는 757편으로 최대 운항편수를 기록하고 있는 타이베이-인천 운항편수 758편에 육박하고 있음. 타이베이-부산/인천 운항편수가 이렇게 근접한 것은 역대 처음으로 대만에서 부산 노선의 인기가 매우 높음을 반증하고 있음. 부산 노선의 증편은 3월말부터 이어졌다는 점에서\* 4월에는 타이베이-부산 노선 운항편수가 타이베이-인천 노선 운항편수를 넘어섰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6월부터는 스타룩스 항공이 타이베이-부산, 타이중-부산 노선에 신규 취항할 예정이어서 이러한 흐름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진에어) 3.30~ 타이중-부산 주5회 신규 취항/ (중화항공) 3.29~ 타이베이-부산 노선 주4회 증편/ (티웨이항공) 3.29~ 가오슝-부산 노선 주7회 운항 재개

## 2.3 향후 전망

### ○ 대만 방한입국루트, 인천/김해공항 비중차이 크게 좁혀져, 운항편수도 거의 비슷, '붙었다'

- (통계적 분석) 대만 통계 기준으로 보았을 때, 1분기 중 대만 전체 아웃바운드 관광인원은 전년 동기 대비 19.4% 증가하였고, 주요 목적지 국가를 비교하였을 때, 일본은 24.6%, 한국이 39.4%, 중국이 24.8% 증가하여, 한국이 일본과 중국시장의 증가세를 크게 넘어서면서, 대만 아웃바운드 여행시장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상황
- (시장환경적 분석) 현지 업계와 언론은 현재 방한시장의 활황은 대만의 Z세대가 주도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는데, 그들 사이에서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고, LCC 중심의 저렴한 항공권이 Z세대로 하여금 “부담스럽지 않게” 한국여행을 계획 할 수 있게 하고 있다고 전함. 최근 유류할증료 인상으로 인한 전반적인 항공권 인상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인상폭이 낮은 한국상품으로 수요를 집중시키는 경향이 있고, 한국항공권은 가성비가 좋다는 소비자들의 인식은 유가 인상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한국수요를 자극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음. 다만, 최근 새로운 여행지역과 콘텐츠를 찾는 대만 젊은층 사이에서 상하이 등 중국 대도시 자유여행 인기가 높아지고 있으며, 중장노년층의 비공식 중국 단체여행이 점차 증가되고 있는

추세. 새로운 관광 콘텐츠, 높은 가성비, 문화와 언어장벽 없음 등의 이점에 중국정부의 제안대로 중국 유명 관광도시 중심 양안 간 직항 노선까지 확대된다면 한국여행 수요에 일부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주목되는 바임

- (여행업계 방한상품 현황 분석) 항공사들의 유류할증료 인상 계획 발표에 따라 3~4월 중 서둘러 여행을 예약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방한상품 판매가 여행사별로 전년 동기 대비 10~30% 증가, 많은 여행사들은 5월까지 방한시장 상황을 긍정으로 평가. 일부 여행사들은 해외여행 의지가 강한 소비자의 경우 인상폭이 상대적으로 적은 한국상품으로, 한국상품 중에서도 LCC 이용상품으로 '전환구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으며, 특히 최근 대형 기업 인센티브 단체가 비용문제로 한국으로 목적지를 변경한 경우도 보고되고 있음. 4월 말 현재, 항공사들은 5월 중 유류할증료 추가 인상을 예고하고 있고 미국-이란 전쟁의 종결과 유가 안정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대만 소비자들은 6월 이후 해외 여행상품에 대한 반응은 느린 편으로 알려져, 여름 성수기 시장 상황은 '관망' 기조
- ⇒ (종합전망) 미국-이란 전쟁이 뜨겁게 달아오른 대만 아웃바운드 여행시장에 잠시 '숨 돌리는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 듯한 인상. 이러한 틈을 타, 일본과 한국여행이라는 양대 주류상품에 '국내여행'과 '중국 대륙여행'이라는 이전 주류상품이 다시 도전장을 내고 경쟁하려는 모습도 보임. 외부환경의 영향으로 대만 아웃바운드시장과 방한시장의 증가세가 주춤할 수는 있겠으나, 가성비 최고로 평가 받고 있는 '한국 LCC 항공권'과 식지 않는 'K-콘텐츠의 열풍' 덕에 2분기에도 대만 시장 내 방한상품의 경쟁력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

### 3. 타이베이시사 '26.4월 현재 추진 주요사업 및 동향

- 3.1 2026년 상반기 여행업계 모객광고지원(1~6월)
- 3.2 경주벚꽃마라톤(4.4) 모객
- 3.3 2026 K-관광 로드쇼 in Taipei(5.15-17) 준비
- 3.4 2026년 첫 번째 Taiwan Only 사업(세종낙화축제/5.16) 모객지원

- 3.5 대만 예능프로그램 방한 촬영 지원
- 3.6 중부지역 여행업자 팸투어 진행(4.16-21)
- 3.7 대만 개별관광객 활성화 캠페인 K-local 100 Highlights 준비
- 3.8 K-local 100 사업 관련 중화항공 및 라이언여행사 협의
- 3.9 충청권 관광진흥협의회 대만관광설명회 지원(4.21)
- 3.10 전주관광마케팅 및 에어로케이 공동 전주 팸투어(5.21-24) 지원
- 3.11 대만국제교육교류연맹, 방대만한국교장단팸투어 간담회 참석(5.8)
- 3.12 대만 세신대학교 관광학과 한국여행발표회 참석(5.6)
- 3.13 코리아플라자 활용 K-관광 로드쇼 참여 콘텐츠(관광기념품) 전시
- 3.14 Taiwan Only 사업 관련 본사 관련부서와의 화상회의(5.11)
- 3.15 업무협의(부산관광공사(4.23), A&T여행사(4.16), 원산대반점(4.27))

※ 언론매체(연합보, 나우뉴스, 뽀바오, 자유시보, 중국시보, 뽀치, 공상시보, TVBS, 중앙통신사(CNA) 등), 대만 관광서, 대만관광협회, 대만여행업품질보장협회,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 한국항공협회 항공포털 및 업계동향 등 종합. 끝.